

동/물/보/호/자

가을호 2008. 11

함께 나누는 삶

No.3

반려동물문화캠페인 _ 3 중성화 수술의 중요성 | 기획리포트 _ 2 서울시의 길고양이 TNR,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INTERVIEW 이명희 보그코리아 편집국장 | Animal Watch 동물 쇼 | 세상읽기 '내가 아는 편식주의자' 되기 | 현장에서 대안적 돌봄



동물을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인간세상보다 더 오래된 세계에서,
우리로서는 결코 얻지 못했거나
혹은 잃어버린 여러 감각을 풍부히 소유한 그들은,
우리들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목소리를 이용해
더욱 세련되고 완전하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도 아니고, 부하도 아니다.
그들은 인생과 시간의 망에 우리와 함께 어울려
지구의 아름다움과 수고에 사로잡힌
동료 죄수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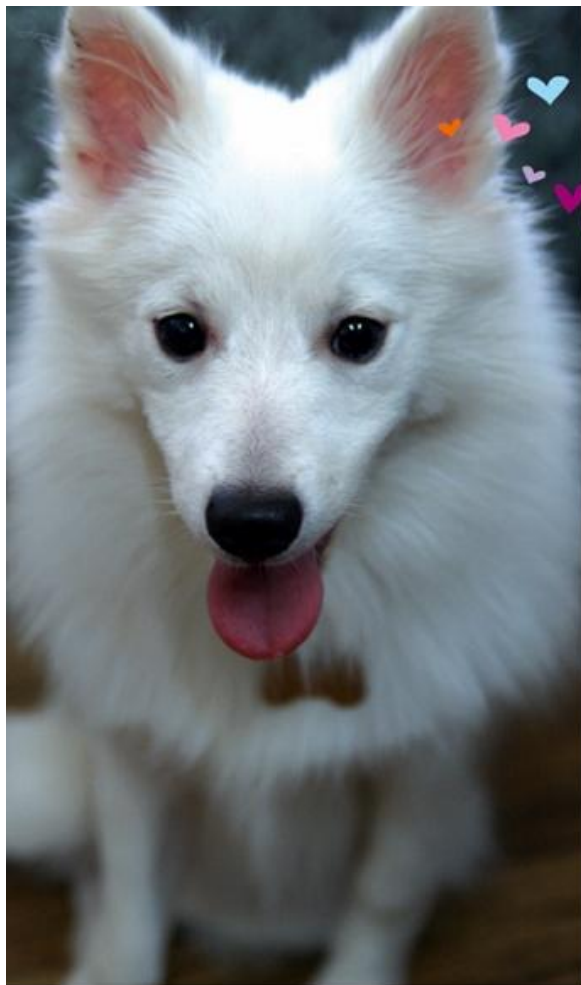
- 헨리 베스턴





- 2 **건생역전** | 이제는 사랑스럽게 쫓~이라고 불러주세요!
- 4 **반려동물문화캠페인_3** | 중성화 수술의 중요성
- 5 **동물보호법 FAQ** | 노점에서 개를 싸게 파는데 사도 괜찮은가요?
- 6 **입양해주세요** | 분홍이의 가족이 되어 주세요!
- 7 **기획리포트_2** | 서울시의 길고양이 TNR,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10 **INTERVIEW** | 이명희 보그코리아 편집국장
- 12 **Animal Photography** | 사진으로 보는 동물 쇼
- 14 **Animal Watch** | 동물 쇼
- 16 **세상읽기** | '내가 아는 편식주의자' 되기
- 18 **현장에서** | 대안적 돌봄
- 20 **활동소식** | 2008년 9월~11월
- 22 **포토행당뉴스**
- 23 **Live on vegetables** | 반갑다. 만두야!
- 24 **후원해 주세요**





사랑스럽게
짖~이라고
불러주세요!

윤 정 임 | 동물자유연대 · 한국동물복지협회 선임간사

아주 어릴 때부터 2년이란 긴 시간 동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주인의 화풀이 대상이 되어 매일 걷어차이고 던져졌던 가여운 사랑이.

사랑이의 앞다리 하나는 이미 꺾여 굳어진 상태에다, 뒷다리는 바닥에 대지 못하고 지낸 지 한참된 상태에서 구조된 아가입니다. 절뚝거리면서 안아 달라, 예뻐해 달라 다가오며 사랑을 너무나 갈구하던 아이.

처음 의심했던 대로 앞다리는 손 쓰기에는 너무 늦어버렸고, 뒷다리도 뼈 두 군데나 부러진 심각

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어려운 수술을 무사히 잘 이겨내 주었고 김스를 한 상태로 한 달 동안이나 케이지 안에서 잘 버텨 주었던 씩씩했던 아가였습니다.

우리 사랑이가 잘 있나 몰래 책상 너머 케이지 안을 들여다보다가 눈이라도 맞출라치면 김스한 목직한 다리로 지탱하며 일어나 온몸을 흔들며 대며 좋아해 혹시 수술한 뼈라도 어긋날까 노심조사 제대로 눈도 한번 못 맞춰주고 김스를 풀면 맘껏 놀아주마 했는데..., 흑..., 그게 맘대로 되나요. 그렇게 고대하던 김스를 풀어도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기 일쑤였어요. 흑흑. 미안해 사랑아~.

그러면 어느 날 발랑쟁이 사랑이의 사연을 눈물 흘리시며 보시다 입양을 결정하신 미연님의 방문에 날아갈 듯이 기뻐했던 마음을 미연 씨는 눈치 채셨을까요?

자, 그럼 2년의 시간을 보상해주고도 남을 마음 넓으신 미연 엄마의 사랑이 양육기를 살짝 엿보세요. ㉓



용맹하고 총명해서 한번 알려주면 곧잘 배운다지요.
'쫂이'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도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정말 아들 하나를 얻은 듯합니다.

이미연 씨 · 인터뷰

처음 마주했던 차가운 눈빛을 따뜻한 품으로 감싸 안은 지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사람에게 그렇게 시달렸는데도 같은 동료 건들은 싫고 굳이 사람 품을 찾는 애교쟁이 사랑이.

용맹하고 총명해서 한번 알려주면 곧잘 배운다지요. '쫂이'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도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정말 아들 하나를 얻은 듯합니다. 이제는 사랑이보다 쫂이라는 이름에 더 익숙해요. "쫂아~, 쫂아~"라고 사랑스럽게 부르면 먼지떨이 같은 꼬리를 살랑거리면서 귀를 꺾 내리고 술술 기어와요.

하루 종일 웃고 다니면서 우리를 보며 웅크하는 이 사랑스런 녀석 때문에 옥탑 방을 구해 이사 왔습니다. 40평 남짓한 마당을 간지 나는 포스로 마구 뛰어다니는데,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아요. 비록 웅아들이 널려 있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자기 영역이 확실해서 집에 낯선 사람이 오면 가기 전까지 계속 짖어요. 화장실도 못 가게 해서 친구들이 좀 고생입니다. 집안에 들어오는 파리, 모기도 다 쫂이가 사냥해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놓치면 화를 내고 돌아서는데 자존심 상한 듯 한숨을 푹 탄답니다. 하하^^

지난번에는 마당에서 무엇과 싸우고 있기에 뺐더니 발을 입에 넣었다 뺐다 하고 있는 거예요. 따가운데 녀석은 집아야겠고... "쫂아, 그만하고 와" 하니깐 씩씩거리면서 집안으로 오더군요. 하루하루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 쫂이네입니다! ☺



중성화 수술의 중요성

한 쌍의 개와 그 자손은 6년 동안 6만7,000여 마리의 강아지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한 쌍의 고양이와 그 자손이 7년 동안 낳을 수 있는 고양이는 무려 42만 마리입니다. 해마다 떠돌아다니는 개와 고양이의 수는 늘어만 가고 있고, 이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수용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개나 고양이들은 적당히 입양해 갈 기정이 없어 폐사 당하는 등의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은 동물의 건강과 무분별한 번식, 그로 인해 버려지는 동물들이 늘어나는 것과 더불어 대량 살상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반려동물에 대한 **배려**입니다.



암컷의 경우에는 1년에 2회씩 발정을 하는데 때마다 번식하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짝은 번식은 모견에게 가혹한 일입니다. 암컷의 중성화 수술은 난소 제거 수술을 하는 것으로, 유방암이나 자궁 계통의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을 해주면 발정 기간 동안의 출혈로 인해 집안이나 침구 등을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도 없어지며, 실외 생활을 하는 동물의 경우 수컷이 찾아와 성가시게 하는 일도 사라집니다. 암컷이 중성화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이라도 번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컷의 경우에는 발정이 난 암컷을 찾아 먼 거리를 배회하는 일이 없어지고, 공격적인 성향도 줄어들며, 영역

표시를 위해 여기저기에 소변을 보는 일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또한 수컷의 성행위를 흉내 내는 일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습과 과도한 짝짓, 공격적인 행동이 습관화되기 이전의 어린 시기에 수술을 해줄수록 예방이 효과적입니다. 수컷의 중성화 수술은 전립선 등의 생식기 질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의 시기는 대략 5~6개월령 정도에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최근 현대수의학은 8주령부터 실시되는 조기 수술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은 반드시 동물병원 의사와 상담하고 동물병원 의사에 의해 행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노점에서 개를 싸게 파는데 사도 괜찮은가요?



2008년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가정에서 기르는 개를 판매하는 업소는 반드시 관할 시 또는 군청에 동물판매업을 등록한 후 판매해야 합니다.

지하철 역이나 변화가를 지나다보면 이따금 어린 강아지를 팔고 있는 노점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모두 불법입니다. 그뿐 아니라 기존에 영업을 하던 판매업장도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불법 영업입니다. 이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자유업으로 신고나 등록 없이 영업을 했던 동물판매업이 가정에서 기르는 개를 판매할 시에는 등록을 하도록 법령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이들 판매업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사항도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2009년 이후부터는 2개월 이상인 개만 판매할 수 있으며, 14세 미만인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만 동물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판매업등록번호, 업소명, 동물의 출생 일자가 포함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장묘업의 등록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반려동물이 죽으면 생할 쓰레기와 함께 버리지거나 몰래 매장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반려동물을 잃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는데요. 반려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위해 반려동물장묘업이 제도화되었습니다.

만약 동물판매업이나 동물장묘업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업소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날로 높아가는 애견 시장과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구입할 때 최대한의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합법적으로 등록돼 있는 판매업소인지를 확인해 주세요. ☺



입양해 주세요



분홍이의 가족이
되어 주세요!

듣직하고 늠름하고 우람한 시츄 분홍이에요.

분홍이는 깽쟁이 암컷이랍니다.

오만 가지 간섭은 다 하고 다니는 동네 반장 아줌마 같은 푸근한 성격과 넉넉한 몸매, 뒤집고 누워 육중한 배를 흔들며 온몸을 꼬는 작살 애교까지.

오늘도 분홍이는 이 놈 저 놈 훈계하는 데 바쁩니다.

"너는 대강 좀 설쳐. 멍멍!"

"너는 패드에 쉬아를 해야지. 응? 멍멍!!"

"너는 웬데 여기 있는 거야? 여긴 내 구역이야! 멍멍멍!!"

"애들아, 언니들 맛 있는거 먹나봐. 좀 달라고 찾아봐! 왈왈왈!!!"

예구 예구 자기가 더 시끄러운 잔소리쟁이 분홍 아줌마.

식탐이 어찌나 많은지 처음엔 분홍이의 불룩한 배를 보고 사무실에서 아이들을 돌봐주시던 계순 할머니가 임신한 개가 들어왔다는 말 리 병원에 데려가라고 성화였어요.

쉬는 한강 즐기만큼, 응아는 거대한 산만큼...

뭐든 절제의 미는 망각하고 사시는 무대뽀 분홍 아줌마랍니다.

지금은 이렇게 팔자가 늘어져 살만 디룩 디룩 찌고 있지만(아마도 맘이 편한가 봅니다), 분홍이는 유기견으로 신고 접수가 돼 한 동물병원에서 보호받고 있었어요. 보호 기간을 하루 딱 남기고 안락사의 기로에 있을 때 기적적으로 동물자유연대 협력병원 원장님의 눈에 띄어 새 삶을 보장받게 되었죠. 예외 없이 제일 따듯하고 폭신한 곳을 고집하는 다른 녀석과는 달리 늘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분홍이를 보고 있으면 가끔 과거의 삶은 어땠을지 궁금해 질 때가 많아요.

오늘도 깔아준 방석은 뒷전으로 하고 그 옆의 바닥에서 드르렁, 찹찹, 코를 골면서 주무시는 분홍 아줌마. 그러다 곧 벌떡 일어나서 "밤 짹! 밤 짹! 왈왈왈" 하실 겁니다. ㄹ





서울시의 길고양이 TNR,*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 지 영 | 동물자유연대·한국동물복지협회 간사

2008년부터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TNR이 시행됐다. 귀찮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길고양이와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길고양이의 복지를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무적인 일일 것이다. 서울시 TNR은 현재 25개 구 모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16개 구는 관할 지역 내 동물병원과, 9개 구는 동물구조관리협회와 함께 협력해 TNR을 진행하고 있다. 16개 구의 사업계약 동물병원은 포획하거나 방사하는 인력을 고용 또는 업체에 재위탁하거나 수의사가 직접 현장 활동을 하고 있었다. 9개 구는 동물구조관리협회가 포획과 방사를 맡고 중성화 수술은 대개 지역 내 동물병원과 협력해 시행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 보호와 지역 주민의 민원 해소를 위한 TNR 시행이 효율적으로 정착돼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TNR 시행의 향후 전망과 시행 과정의 개선 사항을 알아보려고 했다. 이에 따라 TNR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동물병원들을 찾아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시행 경과와 수의사들이 생각하는 개선점, 동물보호단체로서의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난항을 겪고 있는 설문조사

1차적으로 구청과 TNR을 시행하고 있는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설문하고자 해당 구청에 문의를 했으나 일부 구청에서 책임 여부를 서울시나 동물병원 쪽으로 돌리면서 협력을 회피했다. TNR을 현장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동물병원 원장들과 임상 수의사들에게 TNR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고, 어려운 점이나 개선될 사항에 관한 의견을 들으려 했으나 설문을 시작 전부터 어려움에 부딪혔다. 사전에 연락을 취한

* TNR (Trap Neuter Return) : 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 수술을 한 다음에 수술 완료 표시를 한 후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는 것을 뜻한다. 고양이 개체 수가 증가하면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민원 해결 방안으로 고양이를 집단 살생을 행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 고양이의 무단방한 번식을 막고 개체 수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TNR을 제안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TNR 시행의 문제점들이 대두되면서 TTVA/RM/Trap Test Vaccinate After Return Monitor이 제안되고 있다. 사후 관리까지 이어져야 중성화 수술 후 재방사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 Korean Animal Welfare Association

동물병원 중 수의사들 3분의 1 정도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방문 설문을 거부했는데 이에 대해 설득력 있는 이유를 듣지 못했다. 우리는 방문 거부의 이유에 대해서 이는 당연히 시행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또한 대부분의 동물병원들이 TNR 관련 자료를 수의사들끼리만 공유하고 있어 TNR 시행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TNR 시행 과정의 관련 내용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이는 시행의 투명성, 공정성과 더불어 시민들 또한 관련 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TNR에 대한 홍보는 우선적으로
서울시나 구청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러 행정 루트를
활용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동물단체와 동물병원 또한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한편에서는 그동안 동물보호 활동가와의 갈등으로 인해 폐쇄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상호 이해와 협력보다는 꼬투리 잡기 식의 동물보호 활동이 동물구조 및 TNR 위탁 사업체의 폐쇄성을 키웠다는 내용이다.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점 또한 위탁사업체들이 감수하고 가야 할 몫이다. 생명체의 생사 여부가 달린 문제에 원만한 합의만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유형의 갈등들은 단지 위탁사업체뿐만이 아니라 정부·지자체의 지원 없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동물보호단체들에게도 예외 없는 상황이다. 상호 간에

대화와 설득으로 좁혀지려는 노력 없이 단지 '이유 없는 비난'의 시선으로만 여긴다면 갈등의 악순환은 계속 될 것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정부·시 지원의 공식성 활동일수록 활동 내용의 투명성이 최우선 사항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간과정 - 일부 동물병원 방문

결과적으로 1차적으로 연락을 취했던 13개 구 중 설문에 응하여 방문한 곳은 종로구, 양천구, 송파구, 강남구, 용산구 등 5개 구의 9개 동물병원이었다. 설문응답을 요청했던 나머지 8개 구의 동물병원들은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이유나 절차나 서류상의 문제를 들어 방문이 지연되었다.

방문을 허락해준 동물병원들은 직접 찾아갔을 때에도 대부분 최선을 다해 협조적으로 응답해주었으며, TNR 시행의 필요성을 잘 알고 구청이나 민원인들과 효율적으로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TNR 시행과 관련된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으며 개선 사항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 Korean Animal Welfare Association

표명, TNR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TNR 시행에 대한 대 시민 홍보를 통한 지역 내 케어맘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일이다.

대 시민 홍보를 통한 케어맘 참여의 필요성

TNR을 시행함에 있어서 케어맘이나 자원봉사자와 협력한다면 포획이나 방사, 케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호보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케어맘들의 참여가 매우 활발했던 용산구의 한강맨션과 같은 특정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케어맘들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지역주민들에게 TNR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TNR의 의미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케어맘들과의 이해와 협력이 힘든 경우가 많았다. TNR에 있어서 케어맘들과 같은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TNR 홍보와 더불어 케어맘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TNR에 대한 홍보는 우선적으로 서울시나 구청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러 행정 루트를 활용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동물단체와 동물병원 또한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TNR 정책이 아직 초기시행 단계에서 재정기반 부실 및 시행착오와 준비 부족 등으로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점들로 인하여 TNR 위탁사업체들이 설문조사를 거북하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첫 시행 단계이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의 상호협력과 이해로 단점들은 개선하고 장점들은 더욱 발전시켜 TNR 정책이 효율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추후 25개 구의 TNR 시행 동물병원 및 동물구조관리협회를 추가적으로 방문하여 TNR 시행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바라건대 보다 열린 마음의 협조를 기대한다. ☺

INTERVIEW

“루씨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명희 보그코리아 편집국장

이명희 + 위재 + 청리

“루씨를 키우면서 세상 사람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과
'키우지 않는 사람' 으로
나누어 보게 됐다.”

루씨는 이명희 보그코리아 편집장이 키우고 있는 말티즈다. 이명희 편집장은 루씨를 '내 삶의 전부'라고 말한다. 반려동물에 대해 전혀 몰랐던 이명희 편집장이 루씨를 기르기까지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다. 인터넷을 통해 '미키'란 강아지를 입양하면서 무작위 분양 시스템을 알게 되었다. 거기다 결국 미키를 잃은 아픈 경험도 했다.

그러다 눈처럼 하얗고, 작은 몸집에 큰 눈망울을 가진 루씨를 키우면서 세상 사람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 보게 됐다고 말한다. 이 말은 보그코리아 창간 12주년 특집 화보집에도 잘 나타나 있다.

루씨에 대한 이 편집장의 사랑은 유별나다. 최근 보그 11월호에도 어김없이 루씨가 등장한다. 편집장 편지인 '킬힐 스토리(Kill Hill Story)'에 '사위를 앞둔 우리 완소녀 강아지 루씨처럼!'이란 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여름 이명희 편집장은 보그코리아 창간 12주년을 맞아 패션스타 100인과 '반려동물과 함께 한...'이란 특집 화보집(8월호)을 만들었고 사진전 '패션 펫(Fashion Pet)'도 열었다. 서울 청담동 갤러리원에서 진행된 사진전에서 얻은 수익금은 전부 반려동물을 위해 쓰였다.

패션 잡지로서는 이례적으로 유명 연예인, 패션 디자이너 및 종사자들, 사진작가 200여 명이 자신이 직접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과 사진을 찍었고, 더불어 사람들에게 버려져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강아지들과 고양이들도 화보에 담았다.

엄정화, 이효리, 남규리 등 유명 가수들이 그들의 반려동물과 함께 했다. 이 밖에 서인영, 채연, 채정안, 조승우, 윤은혜, 한재영, 조승우, 이범수, 이연, 슈퍼주니어, 동방신기, 샤이니 등을 촬영한 사진 작품들이 전시됐다. 사진 촬영은 강혜원, 구본창, 김현성, 보리, 조선희, 조세현 씨 등 정상급 사진작가들이 참여했다. 이들 중 구본창 씨는 작품 4점 중 2점을 판매한 수익을 후원금으로 내놓았다.

200여 쪽에 달하는 화보집에 실린 사진마다 각각의 사연이 실려 있다. 이 사연은 이명희 편집장이 직접 글을 가다듬고 고쳐 실었다.

"사진만 신지 않고 반려동물과 사람에 얽힌 사연을 함께 실으면, 정말 솔직하고 사람들 마음 한구석을 찌르 자극하는 무언가가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했죠. 그래서 일일이 직접 제가 다 사연을 다 달았어요."

사진집이나 사진전을 기획하면서 주위의 반대도 많았을 텐데... 특히 유명 패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패션 잡지 보그에서 말이다. 이명희 편집장은 "물론 많았죠. 아니,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라고 말한다. 하지만 주인에게 버림받은 반려동물들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발전되는 것을 보았고, 이번 기획으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미소가 절로 번지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곳곳이 진행했다고 한다.

사진 전시회에는 펫 용품도 제작해 판매했다. MCM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목걸이를, 루이까또즈에선 가방을 제작했다. 패션 브랜드 '자르맹 드 슈에트'의 디자이너 김재현 씨가 맨투맨 티를, 톰보이는 강아지 티셔츠를 만들어 내놨다. 수입 자동차업체 인피니티가 스폰서로 나섰다. 이것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금은 네이버 카페 유사모(유기견을 사랑하는 모임, cafe.naver.com/typet.cafe)와 동물자유연대에 후원금으로 내놨다. 이 수익금은 버려진 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약과 주사, 사료를 사는 데 쓰이게 된다.

이명희 편집장은 지속적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이벤트를 할 예정이라고 말한다. 매년 12월 열리는 보그 바자회에선 펫 용품을 팔아 반려동물을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

이명희 편집장은 완소녀 강아지 루씨를 키우면서 변화한 자신의 모습이 신기할 뿐이란다. 무심코 지나가는 동네 건공들에게도 길고양이에게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TV에서 보도되는 버려진 반려동물들의 이야기들을 하나라도 빠짐 없이 보게 됐단다.

인터뷰를 마치며 "이명희 편집장님께 반려동물은 어떤 의미입니까?"라는 질문을 해봤다. 이명희 편집장은 한시도 주저함 없이 "내 삶의 전부"라고 말한다. 아니,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이라고 답한다.

이명희 편집장은 앞으로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없는 세상을 희망한다. 그녀 자신이 루씨와 앞으로 계속 살아갈 것이므로, 버려지고 고통 받는 반려동물들이 없기를 바란다며. ☺



사진 : '서울 어린이 대공원 코끼리 쇼'
© Korean Animal Welfare Association

사진으로 보는 동물 쇼

많은 사람들이 유희나 호기심 때문에 관람하는 동물 쇼입니다.
단지 보는 것만으로 여가를 만족했을 장면들입니다.
하지만 인간과의 의사소통이 매우 힘든 동물들이 인간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기까지,
그 과정은 얼마나 혹독했는지에 대해 그들의 고통을 잠시라도 생각해 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동물을 동물답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일, 그것이 진정한 인간다움이 아닐까요?



①	②
③	④

1. 사진 ①
태국의 한 관광지에서 만난 사진 모델 표범.
이 표범은 이빨이 모두 뺀 채 쇠사슬에 묶인 채
관광객들의 사진 모델이 되어 주고 있다.
하루 종일 사람에게 시달린 탓에 표범은 눈도
뜨는 것을 거부했고, 표정은 극도의 스트레스
그 자체였다.
2. 사진 ②
풍선을 터트리기 위해 편을 던지는 자세를 하는
코끼리 편을 멀리 던지기 위해 육중한 몸을
전폭 구부린 자세가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다.
3. 사진 ③
쇼를 끝낸 코끼리들은 1미터도 안 되는
짧은 체인에 묶여 휴식을 취한다.
4. 사진 ④
동물 쇼는 우리나라의 대형 동물원에서도
종종 진행되고 있다.

동물을 동물답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일,
그것이 진정한 인간다움이 아닐까?

동물 쇼



동물 훈련 방법

지구상의 많은 곳에서 오늘도, 동물 쇼가 행해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며 재미있어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이면에 존재하는 동물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얼굴을 찡푸린다.

태국은 관광 상품의 하나로 대규모의 사육과 훈련이 이뤄지는 곳이 있고, 여러 장소를 이동하면서 쇼를 벌이는 서커스, 동물원에서 열리는 동물 쇼 등 그 형태도 다양하다.

동물 쇼를 위해서 동물을 훈련하는 조련사들은 어떤 처벌도 없이 오직 만져주고, 칭찬하며, 음식으로 보상하는 등 지속적인 감정 교류를 통해 긍정적인 자극만으로 원하는 동작과 행동을 반복, 강화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동물 쇼에 나오는 동물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강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처벌과 박탈의 강도는 다소 차이만 있을 뿐이다. 물론 칭찬과 먹이도 사용된다.

정상적인 보통의 동물들은 자발적으로 자전거를 타거나 물구나무를 서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링을 뛰어넘거나 좁은 의자에 올라가지 않는다. 즉 동물에게 있어서 동물 쇼는 자연스럽지 못한 행동이며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이다.

그러면 동물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칭찬과 보상으로 주는 음식이 좋아서라기보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을 때 가해지는 처벌이 두려워서 한다는 쪽이 맞을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코끼리 조련의 경우, 코끼리에게 긴 막대기로 찌르거나 툭툭 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코끼리의 피부는 보기에는 매우 두꺼워 보이지만 사실 보기와 달리 인간의 피부만큼이나 예민하다. 따라서 통증도 매우 잘 느끼며, 멍이나 상처가 발생하거나 찢어지기도 쉽다.

처벌은 혹독하게 때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것뿐 아니라, 말로 하는 것도 막대기 등으로 찌르거나 툭툭 치는 것을 포함한다. 이 행위 또한 강한 강도의 처벌 못지않게 동물에게 공포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동물들은 쇼를 위한 강제 훈련으로 다치기도 한다. 쇠사슬로 묶이거나 끌고 당기기도 하며 멀리서 긴 막대기로 치고 찌르기도 한다.

동물 쇼에 이용되는 곰은 코를 찢거나 입 마개, 또는 목줄을 한다. 다른 동물도 입 마개, 목, 발 등이 쇠사슬에 묶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열악한 환경과 스트레스

동물 쇼를 위해 혹사 당한 동물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이상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 훈련을 하지 않을 때에는 가둬 놓거나 묶어놓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람을 공격하기도 한다.

야생 동물은 보통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이뤄 이곳저곳을 이동한다. 동물원이든 동물 쇼장이든 이들에게 주어진 공간은 턱없이 부

그들도 감정과 고통을 느끼는 하나의 생명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죽하다. 동물 또한 공동체 생활을 하며 사회 생활을 한다. 훈련과 좁은 공간으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도 사회적 행동 결여에서 비롯되는 외로움과 같은 스트레스도 엄청나다. 이로 인해 동물원의 많은 동물이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좁은 공간에서 살기 때문에 운동 부족이나 동물 쇼를 위한 혹사,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발을 절거나 종기 및 관절염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부드러운 흙을 디디고 살아가던 동물들이 차가운 콘크리트 위에서 생활하면서 손과 발에 꺾이지 않게 상처가 나고 잘 아물지도 않는다.

거짓의 포장

동물 쇼 못지않게 이를 홍보하는 사진도 문제다. 동물이 행복하게 보이는 사진을 사용해 동물이 좋아서 하는 행위처럼 보이게 때문이다. 하지만 동물 쇼는 동물을 혹사시켜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며, 이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전부 연출되는 쇼에 불과하며 동물을 돈 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행복하고 즐거워 보이도록 겉으로만 포장시킨 것이다.

야생에서의 코끼리는 두 발로 일어서거나 뒤로 걷고, 짱충 뛰거나 구르고 돌지 않는다. 좁은 의자에도 힘겹게 올라가지 않는다. 또한 다 자란 암컷은 다른 코끼리의 등에 올라타지 않는다. 호랑이도 뒷다리로 서거나 동시에 구르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동물 쇼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동물 쇼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물원처럼 제한된 공간에 갇힌 동물이 야생을 억압하면서 사람의 구경거리가 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입

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구경거리가 되고, 밤이 되면 제대로 누울 곳이라곤 찬 콘크리트 바닥뿐이라면 당신은 어떻게겠는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이상을 보일지도 모른다.

동물원에 갇혀 전시되는 동물을 보면 계속 같은 패턴으로 동물 우리 안을 왔다 갔다하거나 무기력한 상태에 있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은 동물 쇼 이면에 얼마나 많은 잔혹함과 동물의 고통이 있는 줄도 모르고 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아이들과 웃으면서 쇼를 즐긴다. 동물도 감정과 감각을 가진, 소중한 생명이다. 그런 그들을 강제로 구르고 서게 하며 그것을 보고 웃고 즐기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동물은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 환경 파괴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보호하려는 목적이건 전시를 위해서건 인간은 최대한 그들이 원래 살아가던 공간과 비슷한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며, 그들도 감정과 고통을 느끼는 하나의 생명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동물을 혹사시켜서 연출하는 동물 쇼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어떤 종도 다른 종을 오락거리로 삼을 권리는 없다. 우리와 다른 언어와 표현 방식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동물 쇼를 보며 웃고 즐기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다 참된 교육을 생각한다면 자라나는 새싹에게 거짓과 위선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동물 쇼는 보이는 것처럼 재미있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동물들의 고통과 눈물이 존재함을 알아야 한다. ❷

‘내가 아는 편식주의자’ 되기

홍현 신 | 역사

얼마 전 신문에서 ‘한 주에 하루 고기를 먹지 않으면 차 500만 대 스톱 효과’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았다. 지난해에 노벨평화상을 받은 라젠드라 파차우리 유엔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 의장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주일엔 하루쯤은 고기를 먹지 말자”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본인이 채식주의자이기도 한 파차우리 박사는 지난 10월 영국의 한 동물보호단체에서 한 대중 강연을 통해 인류가 고기를 먹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입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축산으로 인한 폐해가 증명된 것만 살펴봐도 지구 육지의 30%가 축산용이고, 곡물의 3분의 1은 사료로 쓰인다. 전 세계가 생산한 콩의 90%를 가축이 먹는다고 한다. 축산에는 또 많은 양의 물과 에너지가 소비된다. 쌀 1kg 생산에 3,000리터의 물이 필요하지만, 같은 무게의 쇠고기를 얻으려면 1만5,500리터가 든다. 사료를 10kg 먹어야 쇠고기 1kg을 얻는다. 또한 축산은 세계 온실가스 방출량의 18%를 차지한다. 더구나 농장에서 가축에게 가해지는 학대와 비위생적 환경의 자료도 수없이 많다.

문화는 항상 변화하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먼저 깨달은 자, 즉 ‘선각자’들이 있게 마련인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채식이 우리 몸과 지구, 모든 생명을 구하는 길이라 깨달은 이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임에 틀림없고 그만큼의 책임과 과제가 주어지는 것이다. 다른 이에게 알려주고 먼저 실천해야 할 의무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채식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하거나 이 세계를 등지고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어야 하는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건 참 다행이다. 물론 채식을 결심하는 것도 어렵고 실천하기도 쉽지는 않다.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걱정도 되지만 채식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곳에서 가능한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까 일단 시작이 중요하다.

모두 완전한 채식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채식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 채식의 단계를 한 번 정리해 보았다. 이것을 채식의 종류나 유형으로 보기도 하지만 나는 그저 단계일 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 단지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만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정리해 보았다.





채식의 단계	섭취하는 음식의 범주
세미(Semi)	붉은 고기 No, 조류나 가금류 Yes
페스코(Pesco)	조류나 가금류 No, 생선·해물 Yes
락토오보(Lacto-Ovo)	생선·해물 No, 달걀·우유·유제품 Yes
락토(Lacto)	생선·해물·달걀 No, 우유·유제품 Yes
비건(Vegan)	원전 채식, 우유·유제품 No
프루츠 채식(Fruit)	뿌리나 줄기 No, 열매·잎·곡식 등을 위주로
생채식(Uncooked)	익히거나 열을 가한 것을 먹지 않고 그대로 먹거나 가공해 채식
청구(淸口) 채식	채식을 하되 오신채(파, 양파, 마늘, 달래, 부추)를 피함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채식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모임이나 술자리는 채식인에게 참 불편하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대부분이 육류가 섞여 있기 때문이다. 가끔 음주를 즐기는 내게 지인들은 술이 식물성인 것이 얼마나 다행이라며 농담을 한다. 조금 망설여지더라도 더운 여름날 친구들이 치킨에 맥주 한 잔 나눌 때 빠지지 않고 함께 가서 과일 안주 한 접시 더 시킨다면 나는 왕따가 되지 않을 테고 어린 두 마리 닭의 희생을 한 마리로 선회할 수도 있지 않은가?

종합병원 근무 시절 도대체 왜 채식을 하나며 못마땅해 하던 친한 남자 약사가 하루는 동료를 위해 직접 샌드위치를 싸았는데, 그날 그는 작은 문치의 또 다른 샌드위치를 꺼내 “이건 편식주의자거”라며 두 가지를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귀여운 엄살을 떨던지, 그 편식주의자란 말이 얼마나 따뜻한 애청으로 들리던지, 여기저기 빠지지 않은 보람이 느껴졌었다.

지금 지구와 모든 생명을 위해서는 100명의 비건(Vegan)도 중요하겠지만 1만 명의 락토(Lacto), 100만 명의 락토오보(Lacto-Ovo), 1억 명의 페스코(Pesco) 채식주의자들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문화를 가장 빠르게 변화시키는 방법은 옆에서 많이 접하는 것은 아닐까? 처음 내가 별나다고 함께

하기가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내 주위 사람들이 다 른 어디선가 새로운 채식주의자를 만났을 때는 좀 더 친근하게 이해하며 대할 것이고, 그들 또한 어느새 채식을 자연스럽게 고민하고 실천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우리가 그랬듯이...

이제 다가오는 연말연시, 가까운 사람들과 즐거운 모임에서 우리가 각각 '나랑 친한, 내가 아는 편식주의자'가 되어보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㉔



▲ 각각 단계가 다른 채식을 하고 있는 우리 가족과 지인들이 음식 하나씩을 만들어서 사와서 즐기던 BYOB (Bring Your Own Bottle)의 맥을 잇, 마실것들.

대안적 돌봄

장군리와 친구들의 사례

손혜원 | 동물자유연대 · 한국동물복지협회 선임간사

얼마 전 동물자유연대는 조금 특별한 모금을 진행했습니다. 장군리와 그 친구들을 위한 모금이었는데, 이들은 경기도 오산의 한 동네에서 단짝을 이루고 떠돌아다니는 동물 친구들입니다.

똥똥하고 사람을 잘 따라 동네 사람들의 귀염둥이인 장군이, 인근 공사장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당해 다리를 지는 누렁이, 누렁이와 마찬가지로 한쪽 눈을 다친 점돌이 등 이 세 친구들은 언제나 함께 다니면서 서로 의지하며 지낸다고 하더군요. 최근에는 콘테이너 밑에서 살면서 새끼를 낳은 서리라는 새로운 친구까지 합류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나마 사람을 잘 따르는 장군이 덕에 나머지 친구들도 크게 굶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고 있으며, 새끼들을 훔쳐가거나, 죽임을 당하는 아픔을 계속해 겪고 있어 중성화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장군리와 그의 친구들을 도와주시면 지역 주민들은 이 동물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치료와 중성화 수술을 해주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병원비를 전부 감당하기는 어려웠고, 고민 끝에 우리 단체에 일부나마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로서도 길거리에서 계속 새끼를 낳는 개들을 그냥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 중성화 수술과 치료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도 포기하지 않고 귀찮을 수 있는 우리의 뽀빠리 요구들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주셨고, 비록 이 친구들을 거두지 못하더라도 계속 관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중성화 수술이 가장 시급했지만 막상 진료를 받고 보니 동물 친구들이 모두 심장사상충에 감염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중성화 수술은 뒤로 미루고, 서리와 장군은 심장사상충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친구들도 제보자 분이 동네 분들과 지인을 통해 모금한 돈으로 치료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처음 치료를 시작한 서리는 심장사상충이 특히





▲ 콘테이너 밑 사레



▲ 사레 구조 직후

심해 많이 위험한 상태라 우리 단체에서 보듬기로 결정했고 장군의 새끼들은 제보자 분의 노력으로 따뜻한 품을 찾아 입양되었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상담 전화가 옵니다. 구조와 치료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청을 하는 모든 분들께 부응해 드ρί기가 어렵다는 것도 우리의 고민 중 하나입니다. 시간을 다룰 정도로 매우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제보자가 협력해 줄 수 있는 경우 등을 우선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이지, 모든 분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체로서도 매사에 쉽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단체에는 독립된 보호시설이 별도로 없고 단체의 주 활동은 우리 사회에 동물 보호의식을 확산 또는 정착시키는 등의 근본적인 부분부터 개선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는 비록 길거리 살일지라도 관리해 주실 분만 계신다면 더 이상의 번식을 막고 질병을 치료해 줘 뜻있는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돌봐줄 수 있게 하는 대안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연,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연들, 너무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모두 힘들더라도 각자 최선을 다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몫을 다해 부담을 조금씩 덜어낸다면,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그리 힘들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장군이와 그 친구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세요! ☺



▲ 검은이



▲ 누렁이



▲ 흰둥이

■ 모란시장 애견판매 금지 캠페인

동물보호법에는 가정에서 기르는 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구청장에 등록을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불법으로 애견을 판매하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이러한 불법 판매를 막기 위해 지난 9월 19일, 24일 경기도 성남의 모란시장에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캠페인은 모란시장 내에서 애견을 사고자 하는 예비 소비자를 대상으로 애견 매매가 불법임을 알리고 이러한 상행위의 문제점을 알려 더 이상의 불법 애견 판매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시장에서의 애견 매매로 그치는 것이 아닌 애견의 육견 유통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낚기에 동물자유연대는 이 상행위를 막아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5일장인 모란장이 서는 날짜에 맞춰 캠페인을 진행하다보니 평일이라 봉사자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무척이나 아쉬웠습니다.



■ 동물 보호사랑 축제



10월 18일, 19일 양재 시민의숲에서 '동물 보호사랑 축제'가 있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주최로 여러 단체들이 함께 참여한 행사였는데요, 우리 단체는 인형극과 바른 반려동물 문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인형극은 반려동물에게 이름표 달아주기의 중요성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이라는 주제를 다루었고요. 부스에서는 팸플릿과 기념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인형극은 아이들이 출연자의 질문에 큰 소리로 함창하여 대답을 하는 등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인형극을 본 아이들의 마음에 이름표를 달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 동물보호정책 세미나

10월 18일 동물 보호사랑 축제와 더불어 양재동 AT센터에서는 동물보호정책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동물보호법의 개정을 기해 동물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고취를 목표로 '동물 보호사랑 축제' 중 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었고, 동물자유연대가 주관했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동물보호단체, 정부기관, 농장동물과 실험동물 학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연사로 나와 동물보호법에 대한 각 분야의 의견을 발표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길을 모색해보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 부산구포 개고기 시장 조사

부산의 대표적 개고기 시장인 구포시장을 조사했습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모란시장보다 더 심할 정도로 규모가 크고 골목 초입에는 '구포 개 도매 시장'이라고 크게 간판을 붙여놓고 야에 개 시장으로 특성화를 시켰다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시장에서 도살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정황 증거까지 있어 경악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당장은 해결할 수 없는 현실에 울분을 참고 하루빨리 이러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동물보호 명예감시관 교육

10월 25일 경기도 농업연수원과 11월 15일 부산 적십자회관에서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이 있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주최로 대한수의사회에서 교육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은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 알려주어야 하는 것일 텐데 사육 관리나 동물보호법의 내용을 알려주는 것에 그쳐서 무엇을 위한 교육이었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교육장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바쁜 시간을 쪼개서 참석한 것일 텐데요. 다음에는 좀 더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009년 동물보호 달력 판매

동물자유연대에서는 동물 보호 내용이 담긴 2009년 탁상 달력을 제작했습니다. 이번 달력의 수익금은 안성보호소의 시설 보수비용 후원될 것입니다. '오산 생명의 집' 양정원 선생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생명의 집 동물들이 안성보호소로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달력 판매 수익금이 안성보호소가 좀 더 안전한 보호처가 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달력을 구매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Photo 행당뉴스

3. 추침시간



취침 준비 완료! 퇴근하면서 전등을 켜 시간이
되니 각자 알아서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5. 이리야

올 연니 제비가 담긴
건 꾸드득 좋다고~
올 간사 가방 위에
어느새 물리가 낫침을
주무시는 예뻐 왕자.

6. 라이언과
비비



"이리와~", "나는 니와~" 이보다 더 할 수 없다
공작의 앞살 커를놀이로 보여 주는 고양이들~"

8. 감시남매들



자러보고 있다! 사무실 안쪽 세상이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특란 나면 물어다보네요^^



9. 풀리화 나뉘이



니 이쁘요? 피부병 때문에 자주 없어서 못하게
카라를 씌웠더니 정정기 직할입니다 ㅋㅋ

나나나~
나와 나 단둘이서♥
풀리와 순돌이의
리브 리브 모드

2. 똥똥이

예뻐해 달라는 건지 스스로 밟을 건지.
똥똥이 똥똥이 똥똥이로 저리고 있네요

1. 똥똥이



날은 춥고, 난로 앞은 따듯하고, 잠은 오고~
난로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똥



이리야
새 옷 입었어?



Live on vegetables ■

반갑다. 만두야!

조지희 | 편집 디자인

채식을 하면서 가끔 생각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라면과 물냉면 그리고 만두입니다. 쌀쌀해지는 초겨울, 통통한 배를 예쁘게 포개고 누워 있는 모락모락 만두들을 보노라면... 쫘! 그래서 직접 만들어 먹기로 했습니다. 동물성 재료는 전혀 들어있지 않은 채식 만두입니다. 사실 만두는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귀찮아서 못해 드시는 거죠. 제가 만들 만두의 재료는 말린 표고와 콩가루가 들어갑니다. 물론 신김치와 당면이 빠져서는 안되지요?^^

재료

두부, 양배추(배추), 양파, 파,
당근, 불린 당면, 감치, 불린 표고,
콩가루, 만두피, 소금, 후추 등



▶ 콩가루는 부족한 단백질을 채워주며 불기있는 재료들이 잘 융치도록 도와줍니다.



▲ 말린 버섯은 허룻밤 정도 물에 담가서 불리세요. 끓는 물에 소금을 살짝 넣어 데친 후 사용하세요.



▲ 불린 표고는 마늘과 간장을 넣어 기름에 볶습니다. 다진 파와 맛술로 마무리 합니다.



▲ 모든 재료는 잘게 다져 주세요. 감치와 두부는 물기를 짜주세요. 간은 소금과 후추로 하시고. 마지막에 참기름이나 포도씨유를 넣어주시면 드실 때 부드럽고 좋습니다.



▲ 이제 모두 섞은 재료를 얹어 두시고, 만두피는 찢는 걸 샅어옴에 써서 이쁘게 빚어주시면 됩니다. 만든 후 바로 써서 먹었습니다^^



후원해 주세요

동물들은 이 지구상에서 인간과 함께 공존하며 자연의 어우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들은 인간 삶의 질에 다양한 형태로 기여하기도 하고, 많은 수의 동물들이 인간을 위해, 인간에 의해 희생되기도 합니다. 정서가 메마른 현대 사회에서는 인생의 동반자로, 인간의 식생활과 생활용품, 오락, 의학, 과학 개발의 현장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곳에서 동물들이 이용되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이 이용되는 과정에서 동물에게는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때론 인류에 대한 공헌으로 합리화되기도 하지만, 그 고통을 줄이려는 노력에는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지, 인간은 동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 의무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으로서 대우받지 못하는 사회, 고통을 호소하며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지길 원하는 동물들의 절규, 끝 간데 없는 동물 이용. 우리는 동물의 고통에 무관심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모였습니다. 생명에 대한 자비심이 충만한 가치 사회를 구현해나가는 일, 여러분들의 동참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부당한 처우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는 동물들을 위해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사)한국동물복지협회의 후원인이 되어 주십시오.

후원 방법

- 이 면을 작성하여 절취하신 후 팩스로 보내주시거나, 홈페이지 <http://animals.or.kr>로 접속해서서 정회원에 가입하시면 후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전화 02-2292-6337, 팩스번호 02-2292-6339 (전송 후 확인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사항을 작성해 주세요.

이름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휴대폰 _____

주소 _____ 전 화 (집/회사) _____

자동이체계좌번호 _____ 은행명 _____ 예금주 _____

* 예금주와 후원인이 동일인이 아닐 경우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기재 _____

후원금액 _____ 자동이체 날짜 _____ 5일 ☐ 14일 ☐ 23일 ☐ (확인 요망)

* 우리단체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소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몬!
너는 아노노!



안녕하세요. 마고애미입니다.
어느새... 하늘은 높고
말이 살갓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저희집은
천고마비가 아니라
천고묘비의 절정이군요.



마감이라.. 밤새도 모자란데
폭신폭신타 천연털쿠션들은
정말 나에게 치명적 유혹이
아닐수 없구나!

이제 슬슬
월동준비도 해야
하고 저도 좀 더
부지런해야겠습니다.

점점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닥칠텐데...
따뜻한 보금자리 없이
힘겹게 살아가는
생명들은 추운겨울이
전쟁과 같을거예요
여러분의 관심과 손길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모두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원숭양~
이제 그만 창문닫으면
안될까요? 뽕뽕열어
버릴것 같아요!!



유독가스에 걸석해
있느 차라리 열음
상태가 행복하실
거예요.

마고애미♡



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몫을 빼앗아 동물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닌,
 소외된 약자에 대한 분배의 자비심입니다.

함께 나누는 삶

발행일 2008년 11월 30일 발행인 조희경 편집진 행 손해원 교정·교열 이정애 일러스트 이은영
 발행처 동물자유연대·(사)한국동물복지협회 서울 성동구 형당동 307-18 T 02-2292-6337 F 02-2292-6339
 기간지 / 2008, 가을호 www.animals.or.kr 디자인·제작 동방기획(02-2277-0365)